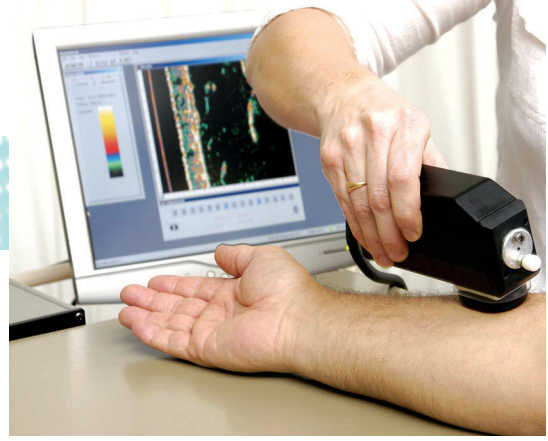




차세대 IT 블루오션  
**'u-Health'**  
월척 낚는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u-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복지 분야의 사업을 공모한다. 바로 u-Health 수요 창출 및 본격 확산을 위해 복지분야 2개 과제의 사업공모를 실시하는 것. 이번에 실시하는 u-공공서비스 규모만 23억원에 해당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작성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u-Healthcare 시장 규모 추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1조 4,000억원으로 향후 u-Healthcare 시장의 천문학적 규모를 낙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2015년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규모 예측에서도 서비스 이용자는 78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5.9%에 육박하고 시장 규모 또한 약 2조 4,600억원~2조 8,400억원으로 2008년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차세대 의료서비스인 ‘u-Health’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면서 인성정보, 빅데이터, 유라클 등 관련업체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건설사 분양시장에도 ‘u-Healthcare’ 서비스 바람이 불면서 디바이스 통해 Healthcare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체 간 전략적 제휴 체결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 바이오스페이스, 인바디로 헤게모니 장악

최근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세계적 기업 GE Healthcare와 미국 현지에서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증가율 40%, 영업이익의 증가율 170%의 놀라운 성장을 일구며 이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강자다. 지난해 순이익의 증가율만 무려 197%나 된다.

특히 쉽고 정확한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InBody)’로 현재 국내 체성분 측정기 시장 점유율 70%를 점유한 바이오스페이스는 전 세계 40개국에 이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다. 바이오스페이스가 개발한 ‘InBody230’과 ‘InBody720’은 나이·성별 또는 신체 타입과 같은 요소들에 근거해 예상치를 산출하는 기존의 부정확한 방식 대신, 피검자의 체지방과 부위별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로 잘 알려진 솔루션이다.

GE Healthcare가 한국의 중소기업과 계약한 것도 앞선 기술력과 파급력 있는 비즈니스 콘셉트 그리고 탄탄한 마케팅 능력이 높은 바이오스페이스의 로드맵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GE Healthcare 한 관계자는 “바이오스페이스의 뛰어난 인바디 라인 제품들은 GE의 조직화된 유통망과 의학적 이해와 결합돼 GE가 미국에서 체성분 분석을 표준 측정법으로 도입하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이라며 “체성분에 대한 이해는 각 개인들이 더욱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이번 계약 체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차기철 바이오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혁신적이고 가장 앞선 체성분 분석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어 세계적인 선두업체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건강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싶은 소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GE Healthcare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큰 특권”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 대표이사는 “인바디 제품들의 장점인 분석 결과의 정확성, 편리한 사용, 기술적 신뢰도는 이미 확고한 명성을 가진 GE Healthcare 제품들에 잘 부합하며 훌륭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번 계약 체결에 의미를 뒀다.

### 인성정보, 공공분야 u-Healthcare 시장 올인

인성정보 역시 올해 공공분야 u-Healthcare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영업 전략을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인성정보가 주 공략 대상으로 지목한 분야는 공공 보건 의료 및 응급 의료 구조 체계 사업이다.

특히 올해 정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계층 및 격오지를 대상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여 이 부문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게 인성정보의 관측이다.

인성정보 관계자는 “자사의 u-방문보건 시스템은 이미 성북구보건소 등 전국 25개 보건소에 보급됐다”며 “올해는 u-Healthcare 시스템 보급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공공분야와 더불어 민간분야 u-Healthcare 사업에서도 인성정보가 거는 기대는 크다”며 “인성정보는 이의 일환으로 삼성중공업, LG전자 등 홈네트워킹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아파트단지, 실버타운 등에 u-Healthcare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성정보는 한 발 더 나아가 ‘u-Tourpia’ 사업 컨소시엄에도 참여하며 현대인들의 웰빙 바람에 최대한의 밀착한다는 청사진이다. u-Tourpia는 다양한 지역관광 정보를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이용해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

이 u-Tourpia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년부터 추진해 2007년에는 부산이 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에는 대구와 인천 지역이 뺏혀 올해 4월경부터 8개월 동안 시스템 구축 사업을 펼친다. 코스닥시장에서 Healthcare 테마주가 관심을 끄는 것도 다 이유 있는 선택인 셈이다.

### 비트컴퓨터, u-Healthcare 서비스 보급에 총력

지난 1997년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비트컴퓨터도 노인 및 만성 질환자를 포함한 개인을 중심으로 ‘드림케어’ 서비스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원격진료시스템인 ‘드림케어 플러스’ 그리고 손목시계형 건강 모니터링 단말기 ‘드림케어 M’ 등 다양한 u-Healthcare 서비스를 개발하며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전남 신안 도서지역, 안양교도소, 안양메트로병원, 국군 의무사령부 수도통합병원과 최전방 OP, 울릉도와 해군 함대 의무대,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등에 ‘드림케어 플러스’를 보급했으며 드림케어플러스 등 기존 보급된 제품들을 중심으로 올해 u-Healthcare 시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비트컴퓨터 관계자는 “안양교도소 등의 사례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도이치텔레콤을 비롯해 해외 우수기업과 교정기관에도 소개되고 참관할 만큼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알려져 있다”며 “올해도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다수 창출하기 위해 u-Healthcare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컴퓨터 정진진 공동대표이사는 “비트컴퓨터는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 분야의 솔루션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인 u-Healthcare 시장의 전문기업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 분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 유라클, 생활 밀착형 u-Healthcare 시스템 ‘리본’

“에너지, 환경, 식량 등 크고 굵직한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라는 중요한 사회문



제까지 직면한 현 상황에서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u-Healthcare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의 대명사 유라클 조준희 대표이사의 말이다.

조 대표이사는 “한시라도 빨리 u-Healthcare 서비스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서비스의 질, 저렴한 가격,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같은 u-Healthcare 서비스의 근본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잠실 스타파크 213가구 등에 u-Healthcare 시스템 ‘리본’을 공급한 것을 계기로 u-Healthcare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유라클의 무게중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기존에 구축해놓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사업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리본’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라클의 전략 상품인 ‘리본’ 서비스는 집안에서 u-Healthcare 측정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병원 u-Healthcare 센터내의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이 직접 보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유라클 관계자는 “인천 송도 신도시의 2,600세대를 대상으로 리본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대형 유통사와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미 일반인들에게 공급된 리본 서비스의 유료 모델을 판매하는 B2C 제품에 대한 라인업도 구축해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내 u-Healthcare 산업과 시장의 선두에서 의료 선진화를 위해 예방의학을 기반으로 한 u-Healthcare 서비스의 안착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u-Healthcare 시장

u-Health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웹닥(Webdoc) 등의 기기를 통해 혈압과 맥박, 체지방 등을 측정한 후 온 라인으로 수치를 입력하고 간단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미래 블루오션의 월척이다.

특히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인 u-Healthcare는 최근 들어 급부상한 IT서비스 사업의 총아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인구노령화가 급진전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u-Healthcare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계 u-Healthcare 시장은 오는 2010년 약 3,800억달러 규모로 연간 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디지털 홈케어 서비스도 2010년 약 21억달러의 매출이, 고령자 모니터링 서비스도 연간 22%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차세대 IT블루오션의 원도인 u-Health에서 과연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월척을 낚으며 만선의 기쁨을 누릴 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u-Healthcare 서비스 시장이 분주한 것도 그 때문이다. **HNA**